

로마서 강해 7 | 하나님을 경외함

로마서 3:1-18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을 누렸으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유대인이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과 생활 모든 면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바울은 이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열거합니다. 이런 죄성의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은 어떤 면에서 이 특권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까? 오늘날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어떤 것일까요?
2. 바울은 아주 심할 정도로 우리의 최악 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10-12절).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자의 삶이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신자의 새로워진 삶은 어떤 삶일까요?
3. 바울은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의 죄 된 삶에서 특히 언어생활을 지적합니다 (13-14절). 그만큼 변화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확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변화는 언어나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을 진단할 때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 언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4. 다양한 범죄의 저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18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매일의 생각과 생활에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일 설교 중에서 강조한 말씀

-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입니다.
- 전도서 12: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여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